

채권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은행, 회사 등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입니다. 주식과 채권은 모두 본래의 목적은 자금을 직접 조달하기 위한 것 입니다. 채권소유자는 주식처럼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. 채권은 만기가 되었을 때 상환하고 원금과 이자를 받으면 채무자와의 관계는 끝나게 됩니다.